

개혁공천 실종... ‘오만과 무능’ 결정판

■민주당 6·2 지방선거 공천 사실상 마무리

경선관리 등 총체적 부실... 텃밭서 민심이반 자초

단체장 탈당·무소속출마 잇따라 수권 정당 흔들

11일 공천장 수여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공천은 ‘흥행과 감동’보다는 ‘오만과 무능’의 결정판이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정치적이해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려 원칙과 기준이 제각기 다른 공천을 남발한데다, 공천관리마저 부실해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법원의 잇단 경선무효, 현직 단체장·지방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강행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수권전략이 정치적 텃밭에서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패한 시민공천배심원제=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공천의 방법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각종 파행과 논란을 낳았다.

광주시장과 여수시장 후보 경선은 시민공천배심원제 50%와 당원 전수 여론조사 50%의 병행된 방법으로 실시됐으나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와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원들

의 표심이 중앙당의 개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 및 전문 배심원들의 참여율이 70% 선에 머물렀으며 일부 배심원들이 사전 노출되는 등 배심원들의 보안 문제도 취약했다는 평가다.

무안의 경우 당 지도부 스스로 배심원 구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무산시켜 이날 현재 유일하게 공천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실한 경선 관리=무산된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민주당 경선 관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냈다는 평가다. 경선 방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경선 무산이라는 과곡을 맞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부실한 경선 관리로 광주지방법원을 사실상의 공천권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법원은 경선 탈락자들의 당선인 무효 소송을 받아들여 진도군수 후보, 광주 남구 제2선거구와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 목포 제1·3·4선거구 도의원 경선 결과를 무효 판결했다.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고 민심이반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당원 명부 유출·여론조사와 관련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후보의 전과에 대한 고무줄 잣대로 곳곳에서 논란이 제기됐으며 장애인 가점과 탈당의 감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탈당 도미노를 불렀다.

◇개혁 공천은 실종=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 무소속 출마에 나선 단체장과 검찰에 구속된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단체장이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개혁 공천’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였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도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 상당 쪽의 물갈이가 실현됐으나 대의원과 우대당원을 장악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개입된 부분이 많아 ‘그들만의 물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후보 선정을 위한 당원 경선에서 당원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이 담긴 대의원과 우대당원의 표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들여다 보면 민주당이 과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지난 10일 실시된 필리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50·자유당) 상원의원이 사실상 당선됐다. 이로써 세계 정치사에 어머니와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첫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아키노 의원이 11일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지지자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대선 아키노 당선

사상 첫 母子 대통령... “아로요 정권에 대한 심판”

지난 10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서 코라손 아키노 전(前)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50·자유당) 상원의원이 사실상 당선됐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대선 중간개표 결과 아키노 상원의원이 40%를 넘는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조지프 에스트라다(73·국민의 힘) 전 대통령과 마누엘 비야르(61·국민당) 상원의원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TV 방송인 GMA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오전 8시(현지시간) 현재 79%의 개표가 이뤄진 상황에서 아키노 상원의원이 1천223만여표를 얻어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775만여표)과 비야르 상원의원(433만여

표)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키노 상원의원은 사실상 필리핀의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현지 언론과 정치분석가들은 분석했다.

아키노 상원의원은 필리핀의 제15대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됨에 따라 세계 정치사에 어머니와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첫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아키노 상원의원의 승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 정부에 대한 필리핀 국민의 심판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故)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과 아키노 전 대통령 사이에서 태어난 아키노 상원의원은 대선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정치인이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경선 3곳 추가 효력정지

광주지법, 총 7건 인용 4건 기각

광주지법이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이 처리된 3곳에 대해 추가로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총 7건의 경선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1일 광주 서구 제1·2선거구 광역·기초의원 후보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진도지역 광역의원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기암 예비후보와 목포지역 기초의원 경선탈락자 6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경선 하루 전에 인원을 늘리거나 비당원 조사에서 무효처리해야 할 응답을 유효처리하는 등 경선 지역별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또 목포 기초의원 가~마 선거구에 처리된 후보 경선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살지도 않은 당원을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했다”며 경선 탈락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

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목포는 광역의원 1~4선거구 전부와 기초의원 가~마 선거구에서 나온 가처분 신청 가운데 광역의원 3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의 경선이 효력 정지됐다.

이에 따라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경선 관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모두 7건, 선거구별로는 14곳으로 늘게 됐다. 선거구 별로는 진도군수와 광주 남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 광주 서구 광역의원 제3선거구, 목포 광역의원 1·2·4 선거구 등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영광 2선거구 도의원 후보와 광주 광산구 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 탈락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기각 결정은 나주시장 경선과 목포 광역의원 제3선거구, 광주 광산구 광역의원 제3선거구 등에 이어 4번째다.

재판부는 이번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 과정에서 접수된 총 1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1건을 처리했다.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신청’ 처리 현황

내 용	결 과
진도군수	인용
광주 남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	“ ”
광주 서구 광역의원 제3선거구	“ ”
목포 광역의원 1·2·4 선거구	“ ”
광주 서구 1·2선거구 광역·기초의원	“ ”
진도 광역의원	“ ”
목포시 기초의원 가~마 선거구	“ ”
나주시장	기각
목포 광역의원 제3선거구	“ ”
광주 광산구 광역의원 제3선거구	“ ”
영광 광역의원 제2선거구	“ ”
※광주 3곳·순천 1곳 10일 추가 접수	

또 12일을 전후로 광주의 경선지역 3곳과 순천의 경선지역 1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경선과정에 사용된 선거인명부가 잘못 적용되는 등의 문제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13일 이전까지 가처분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이버 선거법 위반 163건 적발

전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사이버상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16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28건, 신안 19건, 곡성 12건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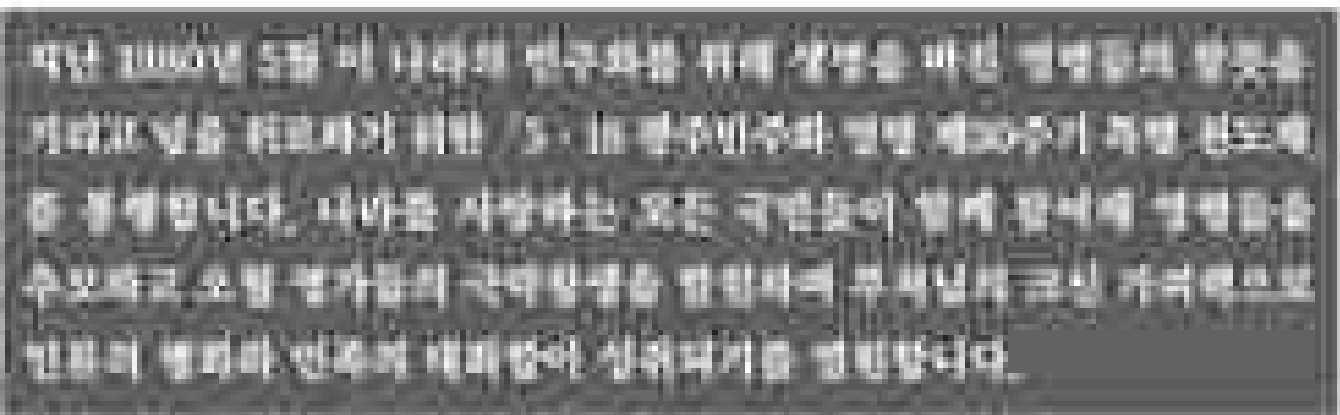
도 선관위는 적발된 대부분이 게시판을 통해 상대후보 비방과 명예훼손 등으로 시정명령 또는 관련 글 삭제를 지시했다. 도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천도제

관음기도도량 불명사 (주지 불명스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0주기를 맞아 5월 15일 오전10시부터 광주 국립 5.18묘역 ‘역사의 숲’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한 특별 천도제>를 영산재로 봉행합니다.



● 천도제는 사(喪)관계 절충보존회(회장 대관스님) 소속 스님들이 영산재 의식으로 5.18 열방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0년 5월 15일 (토) 오전 10시~13시

■ 장 소 : 광주 불명불 5.18 묘역 ‘역사의 숲’

■ 주 관 : 서울 종로구 관음기도도량 불명사 (02) 732-0835

■ 후 원 : 광주불교방송 | 사대원무궁화중앙회 | 남도매일 | 뉴스파이어 | 아메이뉴스 | 코리아뉴스 | 호남매일 | 호남신문 | 희망일보 | CNA21

----- 불명사